

## 남북한 가정생활교육 관련용어 비교분석 - 아동·가족분야를 중심으로 -

임정하\* · 정순화\*<sup>1)</sup> · 송지은\*\*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

##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ies in Child and Family Domains of Family Life Education

Lim, JungHa\* · Chung, SoonHwa\*<sup>1)</sup> · Song, Ji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erminologies used in child and family domains of family life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terminologies relevant to child and family domains in North Korea were se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dictionaries that are developed to compare South-North Korean languages, reports and websites by ministry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magazines and news articles about North Korean daily life. The collected terminologies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criteria on core concepts, 'development' and 'relations' from the 2015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home economics curriculum.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rms categorized under human development were more divergent compared to the terms categorized under family relations. Specifically,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erminologies in the love and marriage section, the life and labor in pregnancy section in human development and the child caring section in family relations. Second, dissimilar terms were more frequently appeared in content area of kinship, marriage, and child-rearing. Third, the discrepancies of terms between the two Koreas were brought about primarily by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 language refinement, and transcription techniques. These findings including the terminology list would be a practical resources providing for students to familiarize with the differences in the usage of terms and for teachers to develop a home economics educational program in provision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s.

**Key words:** 남북한(South and North Korea), 아동·가족분야(child and family domain), 용어 비교(terminology comparison)

---

1) 교신저자: Chung, SoonHwa,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1, Fax: 02-927-7934, E-mail: eigles@korea.ac.kr

2)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034)

## I. 서론

분단 이후 약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과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차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화적 상징으로서 언어는 특정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문화는 언어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규칙뿐 아니라 그 상징과 관련된 의미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amovar & Porter, 2007). 일찍이 주시경 선생도 언어가 어떤 사회현상보다도 불변의 민족적 특성을 간직한 유전물이며, 민족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Park, 2004). 그러므로 언어의 차이는 단순히 언어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의식의 차이를 반영하며, 또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의식의 차이를 다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다.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북한에서는 언어가 인민을 교양하고 개조하고 조직하는 유력한 선전, 선동의 수단이며, 사상적 무기로 생각한다(Kim, 2002).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용어가,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된 용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언어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언어 이질화는 남북한 의식의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표준어를, 북한에서는 문화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표기법의 차이도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1988년 정부에서 발표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의 김일성 교시를 통해 북한의 언어정책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1966년 김일성 교시에서 표준어라는 명칭은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표준어로 ‘문화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어는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으로서 혁명의 수도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 민족어의 본보기라고 정의하였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또 다른 계기는 남한에서는 일본어투나 서구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를 한 반면, 북한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다듬기를 한 것이다. 국어 순화는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상은 주로 일본어투, 서구의 외국어나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다. 반면, 말다듬기는 북한에서 문화어운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과거에 한자어로 통용되던 것을 한자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쉽고 자연스러우며 혁명적 기풍을 살릴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나간 일종의 언어 순화운동으로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Cho, 2003; Choi, 2007; Park, 2004).

언어 이질화를 유발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북한 모두에서 한자사용이 폐지되고 한글전용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면서 그나마 남북의 언어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남북한 방송국의 언어문화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Park & Lee, 2011)에서도 언어학적 변인과 내용이 변인에서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드러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와서 어휘, 발음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ang, 2012),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의식주 생활, 쇼핑, 교통수단, 통신기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각 교과목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남북한 용어의 차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경험한다(Kwon, 2013)고 하였다. 따라서 이질화된 남북한 용어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자료의 제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기초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한 언어관과 언어정책 등의 차이를 분석(Kim, 2009; Kim, 2013)하거나 남북한 교과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비교나 각 분야별 학술용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남북한의 국어교과서 비교분석(Lee, 2007; Lee & Chung, 2006), 남북한 교과서의 통일관련 내용분석(Kang, 2011), 언어학 및 음성학 학술용어비교(Lee, 1995), 수학용어비교(Gil & Lee, 2000; Jang, 2004; Kim, 2006; Park, Lee, & Yim, 2004; Yim, 2003), 지리용어비교(Kim, 2003; Koo, 2010), 화학용어비교(Lee, 2005), 생물용어비교(Lee, 2012), 미술용어비교(Chang, 2001), 음악용어비교(Kwak, 2006; Yoon, 2000), 지질학 용어비교(Kim & Choi, 2003), 의학용어비교(Huh, 1995), 신생아학 용어비교(Han, Kim, Park, Kim, & Lee, 2007), 한의학 용어비교(Lee, 2001), 통계학 용어비교(Lee, 2009), IT용어비교(Choi, Kim, & Jang, 2005), 도로용어비교(Kang, 2008), 9개 교과 용어비교(Kim & Kim, 2009)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남북 학술용어 비교 사전을 발간하거나 교과별 학술용어 남북 대비표를 교과서 편수 자료나 교사용 지도서에 부록으로 실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남북 언어통합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Choi, Yang, Lee, & Im, 2015). 2019년 발간을 목표로 2005년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이러한 언어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통합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정생활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의 삶에서 가정생활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의·식·주, 자녀양육, 가족관계, 소비 등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족 내의 인간관계는 가정생활의 이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직장생활 등 물질적 요소보다도 배우자나 자녀 등 인적 요소를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그러므로 가정생활 내의 자녀양육이나 가족관계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남

북한 용어 차이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가정생활교육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통일대비 관련 가정생활분야 연구들 가운데 교과서를 기초로 분석한 연구는 초등실과 교과 기반 통일 대비 가정생활교육 방안 연구(Chung, 2008; Chung & Kim, 2008; Chung & Hwang, 2007)만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조차도 Chung(2008)의 연구만 소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및 소비생활 관련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통일 대비 가정학 영역의 연구는 주로 초등 실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가정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에 수록된 가정학분야 관련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등교육 이상의 교과서 중심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처럼 가정과 교과분야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북한에는 가정 과목의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 이외에 아동·가족분야 남북한 비교연구로는 남북한 가족가치관 연구(Chung & Lim, 2014; Do, 1999), 자녀가치관 연구(Lim & Chung, 2015), 영유아보육 및 교육관련 연구들(Chi & Kim, 1999; Heo, 2010; Kim, 1995; Lee, Seo, Kim, & Park, 2011; Lim, 1996; Seong & Kim, 2001; Yang, 1996)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한 아동·가족분야 연구 가운데 용어에 대한 연구는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관계 용어를 분석한 Wang(1990)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가족 내 인간관계와 관련된 아동·가족 분야는 이념이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용이하지도 않을 뿐더러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이므로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위한 준비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용체계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기준으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통일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교육 아동가족분야의 남북한 용어는 차이를 보이

는가?

2. 가정생활교육 아동가족분야의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3. 가정생활교육 아동가족분야의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양상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는 가정 과목의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가족 분야에서 사용하는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기 위한 북한 용어 발췌는 북한 용어 검색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용어사전, 통일부 및 정부 산하기관 발행 보고서와 웹사이트를 활용하였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용어 수집이라는 연구의 특성상 북한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단행본과 TV프로그램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말 비교사전(Cho, 2007), 북한용어소사전(Cho, 2003),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1),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남북한 여성생활문화 비교연구(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1), ‘북한용어사전(Ministry of Unification)’, ‘남북한 언어비교(Ministry of Unification)’, ‘북한통계용어(Statistics Korea)’, 북한의 가정생활문화(Lee et al., 2001), 조선여성, 산부인과학 실습지도서(Han, Kim, & Kim, 2003), mbc(2013) ‘통일전망대’를 참고하였다.

### 2.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남북한 용어 비교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인간발달과 가족’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북한 용어 분석자료에서 아동·가족분야 관련 445개의 북한 용어를 추출하고, 단어의 뜻과 그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정리하였다.

2단계: 1단계에서 추출된 용어를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핵심개념 ‘발달’의 주요 내용요소인 ‘청소년기 발달 특징’과 ‘청소년과 성’에 대한 남북한 용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생활’분야 내용체계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가정생활’분야의 5개 하위영역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은 ‘발달’과 ‘관계’를 핵심 개념으로 내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핵심개념 ‘발달’의 내용요소는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이며,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는 ‘자녀 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이다. 각각의 내용요소에 따라 북한 용어를 분류한 결과 총 232개 용어가 분류되었으며, 이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3단계: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핵심개념별로 분류된 용어의 의미와 출처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와 비교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4단계: 마지막으로 남북한 용어의 차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양상을 분석하여 상이한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에 근거한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남북한 용어 차이의 전반적 경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용체계를 활용하여 북한 용어를 분류한 결과 핵심개념 발달관련 용어가 66%, 관계관련 용어가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용어의 차이를 내용요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발달 영역 남북한 용어에서는 ‘사랑과 결혼’영역(52%) 용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신 중 생활과 출산’영역(13%)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부모됨의 준비’영역(1%)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관계영역 남북한 용어에서는 ‘자녀 돌보기’영역(24%) 용어가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영역(10%) 용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발달에서는 ‘사랑과 결혼’내용요소가, 관계에서는 ‘자녀 돌보기’내용요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 2. 남북한 용어 차이의 내용

### 1) ‘발달’영역 남북한 용어의 차이

다음으로 핵심개념별로 구체적으로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영역의 ‘사랑과 결혼’에서는 호칭관련용어(60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혼례관련용어(13개), 가족관련용어(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칭관련 용어 가운데 후어머니(계모), 후아버지(계부), 고모사촌(고종사촌), 고모아버지(고모부), 고모어머니(고모), 만아매(백모), 만아배(백부) 적은이(시동생, 남동생), 걸마누라(첩) 등의 용어는 순수한 한글표기 위주로 바뀐 예이다. 처가를 가시집, 장모를 가세미, 가시어마이, 가시에미, 장인을 가시아비, 가시아빠지라고 칭하는 것은 아내를 칭하는 ‘각시’라는 단어가 ‘가시’로 변화하여 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모를 지칭하는 가세미나 가세미는 ‘가시’와 ‘어미’라는 단어가, 새색시를 의미하는 새기라는 단어는 ‘새’라는 접두사와 ‘애기’라는 단어가 합성되면서 축약되어 만들어진 용어로 볼 수 있다. 삼촌아버지(작은아버지), 삼촌어머니(작은어

머니)는 오히려 한자표기 및 촌수위주의 전통적인 표기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가방(일가친척), 만계(만아들), 가미때기(마님, 안주인), 개하사람(손아랫사람), 작숙(고모부), 가두녀성(가정주부), 가시버시, 가시보시(부부), 노댁(마누라), 짝시(배우자), 가뭇댁(부인), 낸(아내) 등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표현도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건가매, 때박 등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모성영웅, 혁명적 현모양처 등 이념관련 호칭용어도 발견되었다.

혼례관련 용어 가운데에는 반매(우귀), 우시(후행), 우유(후행) 등 전통혼례 관련용어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 오가며 잔치를 하지 않고 어느 한 편이 있는 그 곳에서 몰아서 하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앉은 잔치나 결혼 후 사흘 만에 처에서 차리는 잔치인 보고리 등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도 발견되었고, 오장육기(혼수품), 오장칠기(혼수품) 등 혼례 문화 간소화와 관련된 용어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족관련 용어로는 뜨계부부(사실혼부부), 8.3부부(사실혼부부) 등 전혀 생소한 용어가 발견되었으며, 집난이(출가외인), 집나들이(친정나들이) 등은 한글 표기를 고수한 용어와 ‘가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가시집(처가), 가스집(처가) 등의 용어도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임신 중 생활과 출산’에서는 출산관련용어(13개)와 임신관련용어(14개)가 주를 이루었다. 임신관련 용어에서는 가락지피임(루프피임), 고리피임(루프피임), 고무주머니(콘돔) 등의 표기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수한 한글표기 위주로 바뀐 예이며, 다테해산(다태어출산), 태았다(임신하다), 쌍태임신(쌍둥이임신) 등 태(胎)를 모태로 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또, ‘슬다(설다)’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애기설이(임신), 설

Table 1. Frequency of North Korean terms in content area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핵심개념	내용요소	빈도 (백분율)
발달	사랑과 결혼	120(52%)
	부모됨의 준비	3(1%)
	임신 중 생활과 출산	29(13%)
관계	자녀 돌보기	56(24%)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24(10%)
전체		232(100%)

주: 내용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처리하지 않고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1) 괄호 속은 북한 용어에 해당하는 남한 용어를 표기한 것임

다(임신하다), 배슬다(임신하다) 등의 용어도 다수 발견되었고, 몸비 다(임신하다) 등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용어도 나타났다. 출산관련 용어로는 여똥달내기(팔삭둥이), 일곱달내기(칠삭둥이), 애지기(유산) 등의 표기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수한 한글표기 위주로 바뀐 예이며, 출산을 해산이라는 용어로 대신한 이상해산(제왕절개), 정상해산(자연분만) 그리고 산원(산부인과) 등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용어도 발견되었으나 해산방조(산후조리), 산생물(출산물), 산생기녀성(출산가능여성), 락제국(미역국) 등 전혀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용어도 다수 발견되었다(Table 2 참조).

2) '관계'영역 남북한 용어의 차이

관계영역 가운데 '자녀 돌보기'에서는 자녀돌봄관련용어(2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호칭관련용어(4)와 질병관련 용어(2)도 나타났다. 자녀양육 관련용어 가운데 젓먹임킨(수유실), 조산아집중보육기(인큐베이터), 줄인젓(연유), 첫젓(초유), 걸음대(보행기) 등의 표기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수한 한글표기 위주로 바뀐 예이며,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를 의미하는 모성대리, 유치원 하루 공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과를 반성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별총화 시간, 유치원교사를 의미하는 교양원 등의 용어는 북한 사회체제에 따라 만들어진

Table 2.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s in the core concept, development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호칭관련용어	후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개가함으로써 생긴 아버지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후어머니	의붓어머니, 계모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Cho(20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에미네	여편네, 아낙네	1. 결혼한 여자나 자신의 아내를 앞잡아 이르는 말 2. (평양)아내, 여자	Cho(2007), Ministry of Unification(n.d.b)
	가방	일가(친척)	(함남)일가(친척)를 이르는 말	Cho(2007)
	맡게	맡아들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맡이가 되는 아들	Cho(2007)
	가미때기	마님, 안주인	집안의 여자주인	Cho(2007)
	계하사람	손아랫사람	나이나 향렬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이거나 낮은 사람	Cho(2007)
	고모사촌	고종사촌	고모의 자녀를 이르는 말	Ministry of Unification(n.d.b)
	고모아버지	고모부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Ministry of Unification(n.d.a)
	고모어머니	고모	아버지의 누이를 이르는 말	Cho(2003)
	맡아매	큰어머니, 백모	1. 아버지 만형의 아내를 이르는 말 2. 아버지 형의 아내를 이르는 말	Cho(2007)
	맡아배	큰아버지, 백부	1.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맡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 2. 아버지의 형을 이르는 말	Cho(2007)
	삼촌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을 이르는 말	Cho(2007)
	삼촌어머니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Cho(2007)
	아우형제	형제	형과 아우 또는 언니와 아우	Cho(2007)
	오랍누이	오누이	오라비와 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Cho(2007)
	오랍동생	오라비	여자가 남에게 자기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Cho(2007)
	이모아버지	이모부	이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Ministry of Unification(n.d.a)
	작숙	고모부	(평양)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말	Cho(2007)
	적은이	시동생, 남동생	1. 친척관계에서 시동생뻘이 되는 사람 또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나이가 아래인 사람을 다정히 부르는 말 2. 남자 어른들 속에서 남동생을 가리켜 이르는 말	Cho(2007)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호칭관련용어	때박	-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는 속어	Ministry of Unification(n.d.b)
	아반	아버지	(평양)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Cho(2007)
	가새미	장모	아내의 어머니	Cho(2007)
	가새바지	장인(빙부)	아내의 아버지	Cho(2007)
	가새미	장모	(함북)아내의 어머니를 낮추어 일컫는 말	Cho(2007)
	가새애비	장인(빙부)	아내의 아버지	Cho(2007)
	가시아바지	장인	아내의 아버지	Cho(2007)
	가시아비	장인	아내의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Cho(2007)
	가새애비	장인	아내의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Cho(2007)
	가시아마이	장모	아내의 어머니	Cho(2007)
	가새에미	장모	아내의 어머니를 낮추어 일컫는 말	Cho(2007)
	가시할머니	처조모, 장조모	아내의 할머니	Cho(2007)
	가시할아버지	처조부, 장조부	아내의 할아버지	Cho(2007)
	새원	시동생	(함경)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Cho(2007)
	스오마니	시아머니	(함북 육진)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Cho(2007)
	시아끼	시동생	(함경)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Cho(2007)
	시아끼	시동생	(함북 육진)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Cho(2007)
	건가매	-	1. (과부, 홀아비) 중년기 남녀의 만혼이 이루어질 때 여자 쪽에서 집이며 가재 도구 일체를 장만해 놓고 남편을 맞아 들이게 된 경우를 남자 쪽에서 일컫는 말 2. 살림 도구와 집을 가지고 있는 홀아비	Cho(2007)
	가바시	부부	가시버시(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	Cho(2007)
	가시버시	부부	부부를 속되게 일컫는 말	Cho(2007)
	가시보시	부부	부부를 일컫는 말	Cho(2007)
	낸	아내, 여자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Cho(2007)
	노택	마누라	1.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2. 중년이 넘은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Cho(2007)
	새기	새색시, 처녀	1. 갓 결혼한 여자 2.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 3. (평양)며느리, (함경)새색시, 처녀	Cho(2007)
	에미네	여편네, 아낙네	1. 결혼한 여자나 자신의 아내를 알잡아 이르는 말 2. (평양)아내, 여자	Cho(2007), Ministry of Unification(n.d.b)
	짝씨	배우자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	Cho(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가두녀성	가정주부, 전업주부	(도시나 로동자구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	Statistics Korea(n.d.)	
바깥두렁	바깥양반	식구를 지느린다는 뜻으로 바깥주인을 이르는 말	Cho(2007)	
새기	새색시, 처녀	1. 갓 결혼한 여자 2.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 3. (평양)며느리, (함경)새색시, 처녀	Cho(2007)	
가뭇택	부인, 부녀자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Cho(2007)	
나그네		1. ‘남자어른’을 ‘사람’의 뜻으로 흘하게 이르는 말 2. (함북육진)남편	Cho(2007)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호칭관련용어	결마누라	첩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Ministry of Unification(n.d.b).
	모성영웅	-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운 어머니	조선여성
	혁명적 현모양처		전통적 성역할에 사회적 노동까지 완수하는 여성상으로, 북한사회에서 지향하는 여성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혼례관련용어	단지놀이	단지놀이	전날에, 신랑이 혼례를 위하여 신부의 집으로 가는 날 그 지방 청년들이 간단한 글을 지어 주고받는 방법으로 신랑의 지식 수준과 인품을 알아내던 놀이의 한 가지	Cho(2007)
	맞혼인	연애결혼	연애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결혼	Cho(2003)
	반매	우귀	전통혼례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성혼을 끝내고 당일이나 길일을 택하여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행사	Cho(2007)
	보고리	-	결혼 후 사흘 만에 처가에서 차리는 잔치	Cho(2007)
	살리다	여의다	아들딸을 결혼시키다	Cho(2007)
	서방가다	장가가다	(함복)장가들다	Cho(2007)
	서방보내다	장가보내다	(함복)장가들이다	Cho(2007)
	스줍	시집	(함경)시집	Cho(2007)
	얌은 잔치	-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 오가며 잔치를 하지 않고 어느 한 편이 있는 그 곳에서 몰아서 하는 결혼식	Cho(2007)
	오장육기	(유)혼수품	혼인에 드는 물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오장칠기	(유)혼수품	혼인에 드는 물품 (이불장, 옷장, 책장, 신발장, 찬장, 텔레비전, 세탁기, 선풍기, 녹음기, 냉장고, 재봉틀, 사진기)	Lee et al(2001)
	우시	웃손, 위요, 후행	시집장가 갈 때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향렬이 위인 사람이 대표로 신랑이나 신부를 데려 가는 것 또는 그 사람	Cho(2007)
	우유	웃손, 위요, 후행	우시. 시집장가 갈 때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향렬이 위인 사람이 대표로 신랑이나 신부를 데려 가는 것 또는 그 사람	Cho(2007)
가족관련용어	집난이	출가외인	1. 시집 간 딸 2. 시집을 가거나 온 여자	Cho(2007)
	가스집	처가	(함경)처가를 이르는 말	Cho(2007)
	가시집	처가	처가를 이르는 말	Cho(2007)
	집나들이	친정나들이	시집간 여자가 친정집에 다니러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Cho(2003), Cho(2007), Ministry of Unification(n.d.a)
	8·3부부	-	장사를 다니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관계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2012)
	뜨게부부	사실혼부부	남은 생활양식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우연히 만나서 어울려 사는 남녀를 말함	Cho(2003) Statistics Korea(n.d.)
	전국 어머니대회	-	김일성이 공산주의 교양육성을 위해 어머니들의 교양자적 역할에 관한 교시를 내린 회의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1)
임신관련용어	가락지피임	루프피임	피임하기 위하여 자궁 안에 넣는 기구	Lee et al(2001), Ministry of Unification(n.d.a)
	고리피임	루프피임	피임하기 위하여 자궁 안에 넣는 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1)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임신관련용어	고무주머니	콘돔	성교할 때에 피임, 성병예방 따위의 목적으로 남자의 성기에 씌우는 얇은 고무 주머니	Han et al(2003)
	다태 해산	다태아 출산	다태 임신에 의하여 된 태아를 출산하는 일	조선여성
	몸비짚다	아이 배다	임신하다	Cho(2007)
	태앳다	임신하다	아이를 배다	Cho(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배슬다	임신하다	아이 배다	Cho(2007)
	설다	임신하다	(평북, 함경)아이를 배다	Cho(2007)
	쌍태임신	쌍둥이임신	한 태 안에 태아 둘을 뱀 임신의 한 형태	Han et al(2003)
	애기설이	임신	아이를 배는 것	Cho(2007)
입쓰리	입땃	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	Han et al(2003)	
출산관련용어	삼태자	세쌍둥이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세 아이	mbc(2013)
	선동이	선동이	쌍둥이 가운데 먼저 난 아이	Cho(2007)
	여뿔달내기	팔삭둥이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뿔 달 만에 태어난 아이	Ministry of Unification(n.d.b)
	일곱달내기	칠삭둥이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곱 달 만에 태어난 아이	Cho(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애지기	유산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오는 것	Ministry of Unification(n.d.a)
	산생기녀성	출산가능여성	15~49세 여성인구	Statistics Korea(n.d.)
	산생률	출산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수에 대한 출생한 아이의 수	Statistics Korea(n.d.)
	이상해산	제왕절개	산모의 자궁을 절개하여 인공적으로 태아를 출산시키는 수술	Han et al(2003)
	정상해산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따위의 인공적인 도움 없이 임신부의 자연적인 분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출산	Han et al(2003)
	산원	산부인과	산모의 해산을 돕고 그 산모와 아기를 돌보아 주는 곳	mbc(2013)
	삼태자과	-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의 출산과 진료, 산후조리를 전담하는 부서	mbc(2013)
	해산방조	산후조리	아이를 낳은 뒤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Han et al(2003)
	락제국	미역국	미역을 넣어 끓인 국	Ministry of Unification(n.d.a)

주: 두음법칙, 된소리, 사이시옷 유무 등 표기법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 전달상 문제가 없는 용어는 제외하였음

고유한 용어들이다.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는 호칭관련용어(17)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노년기관관련용어(6개)도 나타났다. 호칭관련 용어 가운데에는 로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를 위시하여 아베, 크라반, 클바지, 클아바이, 하내비, 하라밤 등과 같이 할아버지를 묘사하는 용어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노년기관관련용어로는 죽는률(사망율) 등과 같이 순수한

우리말 표기를 사용하거나, 잊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올리사랑 등 북한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용어도 발견되었다. 또한 없다(죽다), 혼자나다(혼자되다), 홀로나다(홀로되다) 등 남북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용어도 발견되었다(Table 3 참조).

Table 3.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s in the core concept, relations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자녀돌봄 관련용어	젓먹임칸	수유실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젓을 먹이도록 따로 마련해 놓은 방	Ministry of Unification(n.d.a)
	조산아집중보육기	인큐베이터	미숙아나 출생 때 이상이 있는 아기를 넣어서 키우는 기기	Han et al(2003)
	줄인젓	연유	우유를 진공 상태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농축한 것	Ministry of Unification(n.d.b).
	첫젓	초유	분만 후 며칠 간 분비되는 노르스름하고 묽은 젓	Ministry of Unification (n.d.a)
	가루소젓	분유	우유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하여 가루로 만든 것	Cho(2007)
	교양교육	-	셈 배우기, 글자 배우기 등	조선녀성
	걸음대	보행기	젓먹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하려고 태우는 바퀴가 달린 기구	Cho(2007)
	꼬두기	-	장대 같은 긴 물건이나 갓난아이를 한 손바닥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아래위로 추스르는 것	Cho(2007)
	꼬둑꼬둑	-	갓난아이에게 꼬두기를 시킬 때에 하는 말	Cho(2007)
	띠개	포대기	아이를 업는 데 쓰는 띠	Cho(2007)
	양실방실	방실방실	어린아이가 소리 없이 귀엽고 부드럽게 웃는 모양	Cho(2007)
	진아이	-	아직 대소변을 가릴 줄 모르는 아이	Cho(2007)
	폼안다	폼에 안다	폼에 안다.	Cho(2007)
	모성대리	-	가정 밖에서 이뤄지는 육아	Lee et al(2001)
	자갈잡기	(유)공기놀이	자갈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놀이	조선녀성
	교양반	-	19~36개월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소의 반	조선녀성
	교양원	유치원선생님	유치원교사	Cho(2007)
	별충화 시간	-	유치원 하루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과를 반성하는 시간	조선녀성
	보육교양	-	탁아소와 관련된 교육. 어린이 교육.	조선녀성
	보육원	보육교사	탁아소, 보호 시설, 영아 시설 등 아동 복지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일을 맡아 보는 직무	조선녀성
	아이보게	유모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조선녀성
	애기궁전	(유)탁아소	북한의 탁아소를 통칭하는 말	조선녀성
	애기차	유모차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Cho(2003), Ministry of Unification(n.d.a)
	애육원	(유)보육원	취학 연령 전의 고아를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	Lee et al(2001)
	유치원 낮은반	-	만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중심적인 내용을 교양하는 유치원의 반	조선녀성
	육아원	고아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기르기 위하여 따로 설비한 집	Lee et al(2001)
	젓떼기반	-	7~18개월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탁아소의 반	Chung(2009)
	젓먹이반	-	1~6개월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탁아소의 반	Chung(2009)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자녀돌봄 관련용어	준의	-	4년제 의학전문학교를 나온 자로, 유치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3번 정도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유아들을 시진하고, 다친 유아를 치료해주며 아픈 유아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약을 먹여주는 역할	Kang(2010)
	쪽그림 맞추기	피즐 맞추기	풀면서 지적만족을 얻도록 만든 알아맞히기 놀이로 낱말이나 숫자도형 맞추기 따위가 있다.	Chung(2009)
질병관련용어	뜨개병, 뜰병	황달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온몸과 눈 따위가 누렇게 되는 병. 온몸이 노곤하고 입맛이 없으며 몸이 여위게 된다.	Ministry of Unification (n.d.a)
	마누라, 마누래	마마(천연두)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발진(發疹)이 생겨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긁으면 얇게 된다.	Cho(2007)
호칭관련용어	귀염바치	귀염둥이	귀여움이나 사랑을 받는 아이	Cho(2007)
	악동이	악바리	악을 쓰고 모질게 달라붙는 아이	Cho(2007)
	언나	어린이아이	(평양)어린이	Cho(2007)
	손군	손자	여러 대의 손자 또는 여러 손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Cho(2007)
	아버니	아버지, 할아버지	1.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3.(평양)아버지,(함북)할아버지	Cho(2007)
	아베	할아버지	(함경)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애손지	외손자	(함경)딸이 낳은 아들	Cho(2007)
	크라반	할아버지	(평양, 함북 육진)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큰아매	할머니	(함북)부모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Cho(2007)
	클바지	할아버지	(평북)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클아바이	할아버지	(평북, 함북)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하내비	할아버	1.할아버의 낮춤말 2.늙은 남자가 손자, 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	Ministry of Unification (n.d.b)
	하라	할아버지	(황해)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하불애비	홀아버	(함경)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내	Cho(2007)
	하불애미	홀어미	(함경)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는 여자	Cho(2007)
	홀애비	홀아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내	Cho(2007)
로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Cho(2007)	
노년기 관련 용어	죽는률	사망률	어느 특정 인구에 대한 일정 기간(보통 1년)의 사망자 수의 비율	Statistics Korea(n.d.)
	없다	(유)죽다	죽다를 에둘러 이르는 말	Cho(2007)
	연로보장금	(유)연금	북한에서 사회주의 노동법 제5장 74조에 의해 만 60세(여자는 55세)까지 직장생활을 한 노동자 사무원에게 지급하는 것.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1)

내용구분	북한어	남한어	뜻/설명	북한어 출처
노년기 관련 용어	혼자나다	혼자되다	부부 사이에서 한 쪽이 죽거나 헤어져 홀몸이 되다.	Cho(2007)
	홀로나다	홀로되다	부부 사이에서 한 쪽이 죽거나 헤어져 홀몸이 되다.	Cho(2007)
	올리사랑	-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조선녀성

주: 두음법칙, 된소리, 사이사잇 유무 등 표기법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 전달상 문제가 없는 용어는 제외하였음

### 3. 남북한 용어 차이의 양상

아동가족분야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양상은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남한의 표준어에 상응하는 북한의 문화어 사용에 따른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 1)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남북한의 용어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사회체제의 영향을 다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용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주의 대가정, 모성영웅, 전국 어머니대회, 혁명적 현모양처, 가두여성, 뜨개부부 등의 용어는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생겨난 대표적인 용어들이다.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배동이, 복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사회주의 혁명역군 양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체제를 반영하는 용어들이다.

시집가다, 시집보내다가 아니라 서방가다(장가가다), 서방보내다(장가보내다) 등의 용어는 남녀가 동등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고자하는 북한 사회의 평등이념을 반영하는 용어들이다. 이와는 달리 남편을 지칭하는 바깥두령 등의 용어나 아베, 크라반, 클바지, 클아버이, 하내비, 하라 등과 같이 할아버지를 묘사하는 용어가 다수를 차지한 것. 또한 아내를 앞잡아 이르는 말인 에미네 등의 용어는 표면과는 달리 이면적으로는 가부장적인 가족이념이 잔재해 있고 여성의 지위는 낮은 북한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통혼례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행사를 의미하는 반매(우귀), 남한에는 이와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 보고리(결혼 후 사흘만에 처가에서 차리는 잔치), 앉은 잔

치(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에 오가며 잔치를 하지 않고 어느 한 편이 있는 곳에서 몰아서 하는 결혼식), 혼수품목을 의미하는 오장육구나 오장칠기(혼수품) 등의 용어는 북한의 결혼 문화가 전통적인 혼례의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간소한 결혼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의 예로 볼 수 있다.

#### 2)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말다듬기로 인해 나타난 용어의 차이는 외래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와 우리말로 상태를 묘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대표적이다.

가락지피임(루프피임), 고리피임(루프피임), 고무주머니(콘돔), 조산아집중보육기(인큐베이터) 등의 용어는 영문 표기방식을 배제하고 순수한 한글표기를 고수한 말다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새끼배기(임신), 아이낳이(출산), 새끼낳기(출산), 여덥달내기(팔삭둥이), 일곱달내기(칠삭둥이) 등의 임신출산관련용어나 ‘자녀돌보기’영역 용어들 가운데 달 못 찬 아이(미숙아), 젓먹임칸(수유실), 첫젓(초유), 졸인젓(연유), 가루소젓(분유), 걸음대(보행기), 죽는률(사망율) 우시(후행), 우요(후행) 등의 용어는 한자어 표기법을 순수한 우리말 표기법으로 전환한 용어로 볼 수 있다. 가시집(처가), 가세미(장모), 가시어마이(장모), 가시에미(장모), 가시아비(장인), 가시아바지(장인) 등의 용어도 아내를 지칭하는 ‘각시’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다듬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짝씩(배우자), 외짝사랑(짝사랑) 등의 표현은 말다듬기에서 나아가 ‘와·나·-씨’를 붙여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안거두매(가사, 집안일), 부엌거두매(부엌일) 등의 결혼생활 관련용어나 ‘자녀돌보기’영역의 뜨개병(뜨별)이나 진아이 등과 같은 용어는 집안일이나 부엌일을 돌보고 보살피는 상태나, 답답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온몸이나

눈이 누렇게 뜨는 상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한 용어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으로, 다테해산, 태았다(임신하다), 쌍태임신(쌍둥이임신), 삼태자(세쌍둥이),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의 출산과 진료, 산후조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삼태자과 등의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임신을 대신하는 용어로 ‘태(胎)’라는 한자어 표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를 의미하는 해산방조 등의 용어는 오히려 한자표기방식으로 전환한 예로 볼 수 있다.

### 3)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

남북한 간 차이를 보이는 용어 가운데에는 련애군(바람둥이), 스집(시집), 녀편네(여편네), 새기(새색시), 안해(아내) 등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나 사이시옷 유무, 된소리와 예사소리로 인한 차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가시집(처가), 가새미(장모), 가시어마이(장모), 가시에미(장모), 가시아비(장인), 가시아바지(장인) 등의 용어도 아내를 지칭하는 ‘각시’라는 표현이 표기법의 차이로 ‘가시’로 변화한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용어들 가운데에는 남한에는 이와 상응하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신조어가 다수 발견되었다.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고리, 얇은 잔치 등의 용어나 가뭏떡(부인, 부녀자), 가바시(부부), 가시버시(부부), 노떡(아내), 몸비짬다, 배슬다, 입쓰리, 해산방조, 락제국 등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도 다수 발견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용체계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기준으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남북한 아동·가족분야 용어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핵심개념별로는 발달영역 관련용어가 관계영역 관련용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요소별로는 발달영역에서는 ‘사랑과 결혼’ ‘임신 중 생활과 출산’영역 용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부모됨의 준비’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관계영역에서는 ‘자녀 돌보기’영역이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영역 용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교과 내용체계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은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고, 가족원 간의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계형성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발달영역용어가 관계영역용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북한에서 발달영역을 관계영역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모든 용어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요소별로 중복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하므로 비율의 높고 낮음을 절대적인 수치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발달영역용어가 관계영역용어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어디까지나 돌봄과 배려 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기층단위로서 가족의 형성을 강조하고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용요소별로 발달영역 가운데에서 ‘사랑과 결혼’영역 ‘임신 중 생활과 출산’영역 용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북한의 사회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하게 키운 여성을 지칭하는 모성영웅이라는 용어도 북한에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출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Chung & Lim, 2014),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의 출산과 진료, 산후조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삼태자과라는 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북한에서 출산을 강조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계영역 가운데 ‘자녀 돌보기’영역이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영역 용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준다.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일군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어떤 목표보다도 우선되기 때문

이다. ‘부모됨의 준비’ 영역 용어에서 남북한 차이가 낮은 비율을 나타난 것은 북한의 부모역할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며, 탁아시설을 통해 사회적인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북한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Lim & Chung, 2015). 그 결과 북한에는 ‘자녀 돌보기’ 영역에서도 부모역할과 관련된 용어가 오히려 제한적이며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를 의미하는 모성대리, 탁아소를 의미하는 애기궁전, 일과반성시간을 의미하는 별종화시간 등과 같은 보육관련 용어들이 발달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영역에서는 호칭관련 용어와 혼례관련 용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관련 용어들이 사회변화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남한에서 자기, 오빠 등의 용어가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호칭관련 신조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에 한자어로 통용되던 것을 한자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쉽고 자연스러우며 혁명적 기풍을 살릴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나간 북한에서 이루어진 말다듬기(Cho, 2003; Choi, 2007; Park, 2004)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모양처의 의미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충실하여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와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현모양처’라는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오던 단어에 혁명적 기풍을 살리는 ‘혁명적’이라는 형용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혁명적 현모양처라는 용어는 전통적 성역할에 사회적 노동까지 완수하는 여성상으로, 북한사회에서 지향하는 여성상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혼례관련 용어에서의 차이는 주로 북한의 경우 전통적인 혼례의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고, 검소한 결혼문화를 장려하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서구적인 결혼문화의 유입으로 전통 혼례문화가 상당 부분 서구식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전통 혼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전통혼례문화의 특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장육기, 오장칠기, 얇은 잔치 등의 용어는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장려하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녀성」(조선민주녀성동맹, 1980~2013)에 나타난 결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가 간소한 결혼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관계영역에서도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내용은 자녀양육관련용어와 호칭관련용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표방하여 아버지 김일성 동지라고 칭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부부중심의 남한과는 가족관계 호칭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호칭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자녀양육관련 용어 가운데 보육과 관련된 용어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더 이상 무상 영유아보육이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나, 어린이 시절이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심리적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과 도덕교양 등 사상교양을 강조하였던(Chi & Kim, 1999; Heo, 2010; Kim, 1995; Lee, Seo, Kim, & Park, 2011; Lim, 1996; Seong & Kim, 2001; Yang, 1996) 북한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용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중요 양상은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외래어 표기를 제한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하고자 한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표기법이나 신조어로 인한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한 언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차이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 외래어, 이념성을 띤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Hong, 2007)과 유사하다.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한 용어의 차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이념성을 띤 용어와 가부장제나 전통적 가족이념을 반영하는 용어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이념성을 띤 용어가 다수 발견된 점은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북한에서는 언어가 인민을 교양하고 개조하고 조직하는 유력한 선전, 선동의 수단이며, 사상적 무기로 생각한다(Kim, 2002)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북한사회는 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를 표방하고 이에 따라 남녀간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기층 생활단위”(제3조)로 규정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8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의 극심한 경제난을 다시 전통적 가족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타개하고자 하였다(Kim, 2010). 따라서 전통적, 유교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남북한 용어의 비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남편의 생활무대와 관련된 ‘바깥’이라는 용어와 ‘두령’이라는 용어를 합성하여 만든 바깥두령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지위를 우선시하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잔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는 주로 외래어가 순수한 우리말 표기법으로 바뀌면서 생긴 차이로, 남북한 용어 차이를 만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북한에서는 1956년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여 외래어를 가급적 현대 러시아의 어음론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 표기하기로 하였고(Choi, 2007), 이후의 말다듬기를 통해 한자어로 통용되던 것을 한자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쉽고 자연스러우며 혁명적 기풍을 살릴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나갔으므로(Cho, 2003; Choi, 2007; Park, 2004),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표기법으로 인한 남북한 용어의 차이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규정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다(Cho, 2003; Choi, 2007; Park, 2004).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는 두음법칙이나 된소리, 사이시옷 등과 관련된 것으로 비록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그 의미를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용어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기준으로 남북한 용어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북한 용어 차이의 내용에서는 발달영역에서는 호칭관련내용, 혼례관련내용, 임신관련용어, 출산관련용어, 관계영역에서는 자녀돌봄관련용어, 호칭관련 용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양상은 상이한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북한의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남북한 표기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결과 남북한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는 가정과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과서를 대비시켜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북한문헌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가정과 용어비교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가족분야 남북한 용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Chang K-H (2001).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art ter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한국고등직업교육학 회논문집*, 2(3), 393-404.
- Chi S-A & Kim S-J (1999). A stud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 ·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9(1), 1-23.
- Cho J-S (2007). *남북한말 비교사전*. Hanibook.
- Cho S-R (2003). *북한용어소사전*. Seoul: Yonhap News.
- Choi K-H, Kim S-O, & Jang Y-U (2005). *A comparison of IT vocabulary of ICT edu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Language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03-108.
- Choi Y-G (2007). Languag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way to recover the linguistic identification. *Korean Studies*, 10, 199-228.
- Choi Y-H, Lee M-H, Lim Y-J, Kim S-A, Yoo T-M, Jeon H-J, . . . Seong E-J (2014). *고등학교 기술·가정*. 서울: (주)천재교과서.
- Choi Y-S, Yang M-H, Lee C-K, & Im H-Y (2015).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tudies on linguist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8, 395-426.
- Chung C-H (2009). 사진으로 보는 북녘생활문화2: 탁아소와 유치원 생활. *Minjog21*, 95(2), 136-141.
- Chung M-K & Hwang H-K (2007).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clothing & textiles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I).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145-170.
- Chung M-K & Kim Y-J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dietary life and housing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III).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2), 157-177.

- Chung M-K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family & consumer life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Ⅱ).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1), 129-152.
- Chung S-H & Lim J-H (201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4), 97-127.
- Do H-Y (1999).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북한연구학회보*, 3(2), 83-96.
- Gil B-M & Lee J-G (2000). 남북한 수학 교과서 내용 비교 연구 I: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3(2), 47-58.
- Han G-S, Kim S-Y, & Kim S-K (2003). *산부인과학실습지도서*. Pyongyang Medical College.
- Han M-K, Kim T-Y, Park K-Y, Kim, B-S, & Lee J-J (2007). Comparison of neonatal medical terminolog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18(2), 119-124.
- Heo S-K (2010). *The study on practical experiences of parents from North Korea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Korea.
- Hong Y-P (2007). The direction of dictionary compilation in Gyeoremal keunsajeon(Unabridged and unified Korean dictionary). *한국사전학*, 9, 23-52.
- Huh S (1995). Comparison of the parasitological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아시아문화*, 11, 203-212.
-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2012). *월간북한 5*. 북한연구소.
- Jang H-G (2004).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secondary math curriculum and textboo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Jeon H-H (2011).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flected on the German unifi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Studies, Sangji University.
- Kang B-S (2011). The critical study on North Korean vocabulary of Korean language textbooks-focusing on the 8th grade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2, 215-240.
- Kang D-S (2008). 남북한 도로교통 용어 비교.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5(2), 149-150.
- Kang J-H (2010). Children's rights to food and health, the rights to protection, and the right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kindergart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4(4), 487-507.
- Kim H-J (2006).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s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for the unification -Focusing the mathematical term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H-J (2013). Heterogeneity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nguage and the pedagogical methods to overcome -Pragmatic analysis of advertisement and news. *Korean Language Research*, 33, 137-163.
- Kim J-L & Choe G-S (2003). Comparison of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4(8), 691-703.
- Kim J-W (2003). The comparative study of geography textbooks of secondary and high school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9(2), 153-168.
- Kim K-S (1995).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chool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S (2009). The actual state and unification plan of South and North Korean biological term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4, 79-107.
- Kim M-J (2010).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가족담론 분석*.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C & Kim K-H (2009). The lexical differences of the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 pedagogical field: Based on the textbooks of nine subjects. *Linguistics*, 55, 27-59.
- Kim S-J (2002). Focusing upon the news of the summit con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June 15, 2000: A study on the comparison abou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the broadcasting new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화법연구*, 4, 147-181.
- Koo S-H (2010). *Comparative study of the geography education contents in North and South Korean elementary school : On the basis of textbook comparative analysi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1). *남북한 여성 생활 문화 비교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wak M-R (2006). *남북한 음악 용어의 비교 분석 : 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 Kwon S-H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Lee H-B (1995). 남북한 언어학 및 음성학 분야 학술 용어의 비교 연구. *한글학회*, 133-150.
- Lee H-S (2005). *Comparative study on the chemistry textboo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eservice science teachers' understanding on chemistry terminolog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 Lee J-S (2009). *Comparison of statistics terminolog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99-102.
- Lee K-C, Lee K-Y, Lee E-Y, Lee S-H, Kim D-N, Park Y-S, & Choi, Y-S (2001).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K-M (2001). *A comparative study on oriental medicine terminology of North and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16.
- Lee S-Y & Jeong O-R (2006). A study on the vocabularies in Korean textbook of the first grade of junior high school in North Korea.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74, 193-223.
- Lee S-Y (2007). A study on the vocabulary distribution of Korean textbooks for grade one students of middle school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77, 553-582.
- Lee Y-J, Seo M-H, Kim S-H, & Park Y-J (2011). *A study on child-care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Research Report, 2011-19).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ee Y-S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rms in biology textbook between South Korea vs North Korea : Focusing on higher organism 6*.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Lim J-H & Chung S-H (2015).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77-95.
- Lim J-T (1996).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97-126.
- MBC (2013). *통일전망대* [television broadcast]. Available from <http://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Korea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Notification no. 2015-74 of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Unification (n.d.a). *남북한 언어비교*. Retrieved from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
- Ministry of Unification (n.d.b). *북한 용어사전*. Retrieved from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termDicaryList.do>.
- Park J-M & Lee C-H (2011). Differences of language styles in

- South and North Korea's broadcasting drama analyzed by K(Korean)-LIWC.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2(3), 5-30.
- Park K-S, Lee K-H, & Yim, J-H (2004). A comparative study of the way of introducing fractions in mathematics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14(4), 367-385.
- Park S-G & Kwon P-R (2003). A contras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 Focused on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국어문학*, 38, 29-52.
- Park S-G (2004). A contras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II: Focused on narrative skills, speech and broadcasting speech. *국어문학*, 39, 117-141.
- Samovar, L., & Porter, R. (2007).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H-S Chung, S-H Kim, & Y-H Choi(Trans.). Communication Books.
- Seong Y-H & Kim S-J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day care systems for childre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108-133.
- Shin S-H (1998).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 방안. *사람어문연구*, 11, 5-24.
- Statistics Korea (n.d.). *북한통계용어*. Retrieved from [http://kosis.kr/bukhan/statsWord/statsWord\\_01List.jsp](http://kosis.kr/bukhan/statsWord/statsWord_01List.jsp)
- Wang H-S (1990). Aspect of kinship terms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20, 168-202.
- Yang O-S (1996). A comparison of child care service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93-112.
- Yang S-K (2012). Linguistic Accommod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Yim J-H (2003). A study on the teaching "approximate value" in secondary school: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mathematics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13(1), 77-94.
- Yoon M-W (2000).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한국전통음악학*, 341-363.
- 조선민주녀성동맹 (전호, 1980~2013). *조선녀성*. 조선민주녀성동맹 근로단체출판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가정생활분야 관련용어 가운데 아동·가족분야의 용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한 용어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은 북한 용어 사전, 통일부 및 정부기관 발행 보고서와 관련 웹사이트, 북한의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용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내용체계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영역용어가 관계영역용어보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발달영역 중에서는 '사랑과 결혼' '임신 중 생활과 출산'에서, 관계영역 중에서는 '자녀 돌보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남북한 용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주요 내용은 호칭관련, 혼례관련, 임신관련, 출산관련, 자녀돌봄관련 내용이었다. 셋째,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양상은 상이한 남북한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아동·가족분야 용어 비교를 통해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6월 7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6월 28일